

투데이 칼럼

파죽지세 해리스 대세론

미국 대선이 '떡고 사는' 경제 문제로 좌우될 전망이다. 민주당 해리스도 자국 기업과 노동자 이익을 위해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할 것 같다.

한편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최근 미국 내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과 지지를 격차를 좁히고 있다. 해리스 부통령이 최근 지지를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를 꺾고 11월 미 대선에서 민주당 재집권을 이뤄낼 가능성이 제기된다.

해리스 부통령은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에 처한 유권자들의 '떡고 사는 문제' 해결책으로 미국 제조업의 부흥 등 보호무역주의의 기조를 강조할 것이라 전망이 나온다.

자국 기업의 이익 등을 위해 한국 등 동맹을 상대로 통상 분야 압박에 나설 수도 있다는 관측이 있다.

미국 유권자들은 코로나19 이후 치솟은 물가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으면서 바이든 행정부의 경제 성과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번 미국 대선 판세는 인플레이션, 물가 등 미국 내 경제 상황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

해리스 부통령은 최근 지지율 상승세를 타고 트럼프 대세론을 위협하고 있다. 지난 10일 공개된

뉴욕타임스(NYT)와 시에나네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해리스 부통령은 3개 경합주(위스콘신·미시건·펜실베이니아)에서 지지율 50%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48%)을 앞섰다. 오차 범위 내에서 해리스 부통령이 4%p(포인트)를 앞선 것이다. 이들 3개 경합주는 총 44명의 선거인단이 걸려 있다. 경합주란 미 대선에서 한 정당의 압도적 지지를 얻지 못해 선거마다 결과가 바뀌는 주를 말한다. 유권자 마음이 시시각각 변한다는 의미에서 '스윙'(swing·그네) 스테이트(state·주)라고도 불린다. 미국은 전통적 양당의 강세 지역이 경해져 있고, 6~7개 경합주 표심에 따라 대선 결과가 좌우된다. 해리스 부통령은 경제·통상 분야에서 미국 내 생산 역량 확충, 제조업의 부흥, 양질의 일자리 창

출 등을 위해 정부가 적극적인 역할과 기여를 하는 보호무역주의 성향의 정책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통상 분야에서 자국 기업과 노동자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고려해 한국을 압박할 가능성이 있다. 미국 내에선 21세기 들어 두 개의 중동 전쟁과 금융 위기를 거치면서 '국력 내실화'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커지고 있다. 미국 차기 행정부는 국력 내실화와 효율성을 강조하는 외교 안보 정책과 대내 역량 강화, 호혜성을 강조하는 경제·통상 정책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전문가들은 오는 11월 미국 대선 결과와 상관없이 미국 유권자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대외정책 기조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복귀할 경우 무역수지 적자 감소를 위해 미국에 들어오는 제품 등에 높은 관

정복규
논설위원



세를 부과하며 보호무역주의 정책을 펼 것이라 관측이 나온다.

해리스 부통령도 이에 못지않은 정책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이다. 또 해리스 부통령이 정권을 이어 받을 경우 바이든 대통령이 추진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반도체·과학법(CHIPS and Science Act) 등의 정책도 이어질 전망이다.

IRA는 바이든 행정부가 배터리·반도체 등 글로벌 공급망에서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한 정책이다. 특히 중국산 배터리나 소재를 사용한 전기차는 보조금을 받지 못하게 규정했다.

미중 전략 경쟁과 탈중국 국제 분업 구조 재편에 따라 우리나라 산업 여건도 급변할 것이다. 주요 업종의 사나리오별 영향 전망과 대응 전략의 선제적 마련이 시급하다.

안보 분야에서도 대(對)중국 견제 수위를 높이고자 핵심 동맹인 한국과 일본 등에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요구할 수도 있다.

한미일 안보 협력 체계를 강화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바이든 행정부는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외교부도 미 대선 결과에 따른 대책을 로키(low-key·눈에 띄지 않게) 모드로 마련하고 있다.

사설

의사 갑질과 불법 리베이트

계약사 직원을 의사 집회에 동원하는 등 의료 현장의 '의사 갑질'과 불법 리베이트가 계속되고 있다. 최근 '전국 의사 총궐기 대회'를 앞두고 직장인 명명 게시글 앱인 블라인드 등에는 일부 의사들이 제약회사 영업사원에게 집회 참석을 강요한다는 글이 올라왔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오는 5월 20일까지 '의약품·의료기기 불법 리베이트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은 제약사 등 의약품 공급자나 의료기기가 의약품이나 의료기기를 판매할 목적으로 의료인 등에게 금전, 불품, 편의, 노무, 향응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와 의료인 등이 이를 수수하는 행위다.

계약사가 자사 의약품을 신규 처방한 의료기관에 '의약품 채택료(랜딩비)' 명목으로 현금을 제공하거나, '지장조사 사례비' 명목으로 의사에게 현금을 제공하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 의사와 제약사 영업사원의 '갑을 관계'에 따라 제약사 직원이 지방 출장 대리운전, 가족행사 참석 및 보조, 의사단체 집회 참석, 학회·예비군 대리 출석, 음식 배달, 참고 정리, 심부름 등의 편의·노무를 의사에게 제공하는 행위도 해당한다.

불법 리베이트 신고는 내부 고발이 많은 점을 고려했다. 신고 접수 단계부터 철저한 비밀보호 등을 통해 신고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할 방침이다.

신고자가 불법 행위에 가담했다더라도 처벌이 감면될 수 있도록 '책임감면'도 적극 적용할 계획이다.

접수된 신고는 관계기관과 공조를 통해 처리된다. 불법 리베이트는 의약품 오남용을 초래해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다. 내부 신고가 아니면 적발이 어려운 만큼 신고자 보호·보상을 강화하기 바란다.

2024년 기초연금 인상

2024년부터 기초연금이 인상됐다. 이에 따라 노인 단독가구는 최대 33만 4810원을 받게 된다. 이 같은 액수는 2023년 전년과 비교해 1만 1630원이 인상된 금액이다.

2024년 올해 기초연금은 지난해 소비자 물가 변동률(3.6%)을 반영해 책정됐다. 노인 단독가구 월 최대 33만 4810원, 부부가구 월 최대 53만 5680원을 지급받는다. 올해부터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 기준도 완화됐다. 2024년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이 단독가구 213만원 이하, 부부가구는 340만 8000원 이하로 전년 대비 각각 11만원, 17만 6000원이 올랐다.

기준 배기량 3000cc 이상 또는 차량가액 4000만원 이상으로 정하고 있는 고급자동차 기준에서 배기량 3000cc 이상 기준도 폐지했다. 이에 따라 배기량 3000cc 이상의 차량을 소유한 경우에도 선정 기준액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아울러 일하는 수급자가 최저임금 인상으로 기초연금 수급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근로소득 공제액도 상향 조정됐다.

2024년 인상된 최저연금(9860원)을 반영해 근로소득 공제액은 110만원(2023년 108만원)으로 인상됐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의 경우 주소지 관할과 상관없이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지사 △보건복지부 인터넷 포털사이트 복지포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거동이 불편한 사람은 국민연금공단지사의 '찾아보는 서비스'를 요청하면 된다. 국민연금공단지사서 직접 접수로 찾아가 기초연금신청서를 접수하고 있다.

기초연금액 증액과 함께 다양한 복지 정책을 펼쳐 소외되는 계층이 없도록 더욱 노력하기 바란다.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홍수 고립 주민 구조 돕는 자원봉사자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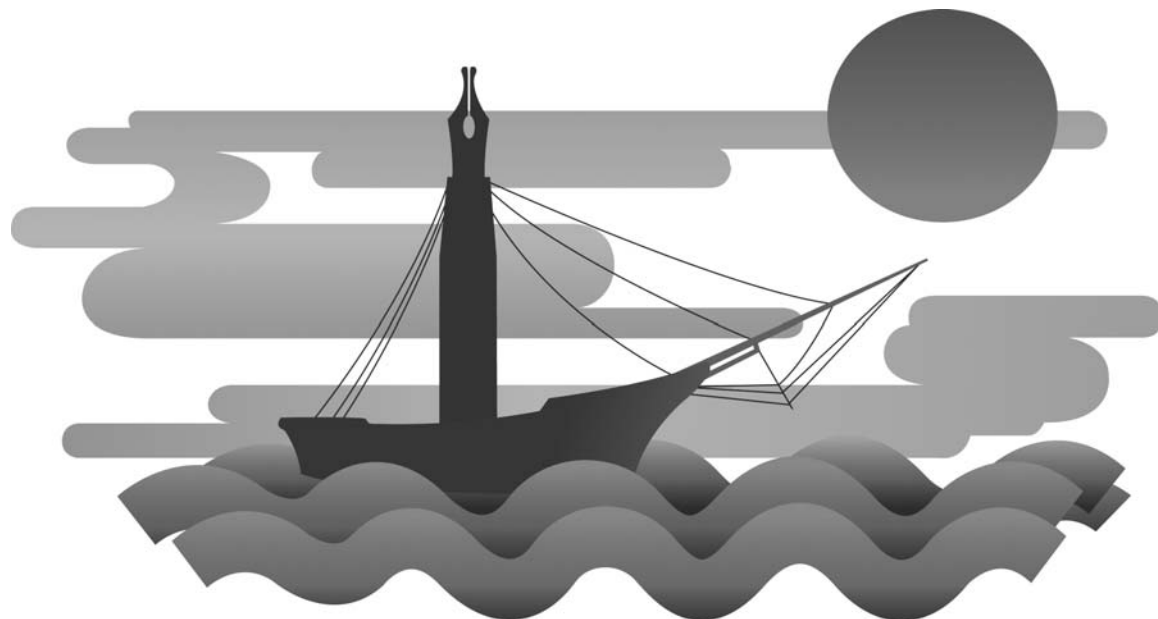


지난 23일(현지시각) 방글라데시 남동부, 인도 트리푸라주와 국경을 접한 페니에 폭우가 내린 후 자원봉사자들이 고립된 주민 구조를 돕고 있다.

해리스 "당선되면 통합의 대통령 될 것"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지난 22일(현지시각) 일리노이주 시카고의 유나이티드 센터에서 열린 민주당 전당대회(DNC) 4일차에 대통령 후보 수락 연설을 하고 있다. 해리스 부통령은 당선되면 진보와 보수를 불문, 모든 미국인을 아우르는 '통합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밝혔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